

5·18 정신 헌법 수록 절호의 기회 살려야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유가족 대표 등이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kwangju.co.kr

尹, 취임 후 3연속 기념식 참석...헌법 수록 언급 없어 아쉬움
여야 지도부 대거 광주 찾아 "초당적 협력·반드시 개헌" 약속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등이 광주를 찾았지만 여전히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명확한 약속은 없어 지역민들의 아쉬움이 컸다는 평가다.

광주시의회 젊은 정치인들은 기념식에서 '5·18 헌법전문 수록'이 새겨진 하얀 천을 들고 묵연의 항의를 했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5월 광주의 거리에 이팝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며 "44년 전 5월,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금남로에서, 도청에서 나눠 먹은 주먹밥을 담은 새하얀 이팝나무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 빠른 경제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실현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는 대선 후보 당시 자신의 공약이자 불과 한 달 전 4·10 총선 때 국민의

힘 공약이었던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 도중에는 광주시의회 5·18 특위 소속 시의원 8명이 '5·18 헌법 전문 수록'이 쓰인 피켓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퇴장하면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하는 양재혁 5·18 유족회장에게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오월 어머니들과 양손을 잡고 앞뒤로 흔들며 함께 불렀다. 윤 대통령은 좌우에 착석한 유족 대표와 약속한 뒤 곧바로 국립 5·18 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고 박근희, 고 김용근, 고 한강은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날 국민의힘도 3년 연속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거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참석했고,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22대 총선 당선인과 원외 조직위원장들까지 총 117명이 모였다.

지도부·현역 의원이 29명, 당선인 23명, 원외 위원장이 65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황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5·18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헌법 수록과 관련해) 대통령의 의지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는 논평을 별도로 냈다.

지도부는 기념식을 마친 뒤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원외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총

선 평가와 당 혁신 및 호남 지역 민심 공략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정지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도 배석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호남의 호응이 커서 두 자릿수 지지를 받았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지지율이) 30%도 나왔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호남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자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위원장들을 향해 "우리가 힘을 합해 다음 선거는 반드시 원내로 진출하자고 다짐하자"며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반영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부각하며 '5·18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하겠다고 하지 않나.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속했으니 지키게 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꼭 해내자"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나를 낳아준 생물학적 어머니는 따로 있지만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사회적 어머니는 광주"라면서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의 정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념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오광록·김혜나 기자 kroh@kwangju.co.kr

최경주 54세 생일에 한국골프 최고령 우승

KPGA SK텔레콤 오픈

최상호 50세 기록 19년 만에 경신

만 54세 생일을 맞은 완도 출신 최경주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 오픈(총상금 13억원)에서 역대 최고령 우승 기록을 세우며 정상에 올랐다.

최경주는 19일 제주도 서귀포시 핀크스 골프클럽 동·서 코스(파71)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3타를 잃어 합계 3언더파 281타로 박상현과 동타를 이룬 뒤 2차 연장전에서 승리했다.

상금 2억6000만원을 받은 최경주는 2005년 KT&G 매경오픈에서 최상호(50세 4개월 25일)가 세웠던 KPGA 투어 역대 최고령 우승 기록을 새로 썼다. KPGA 투어에서 19년 만에 나온 50대 우승자이기도 하다.

최경주는 1970년 5월 19일생으로, 이날이 54번째 생일이었다.

SK텔레콤 오픈에서만 네 번째 우승 트로피를 수집한 최경주는 KPGA 투어 통산 승수도 17승으로 늘렸다. 해외 투어 13승을 포함하면 통산 30번째 우승이다.

KPGA 투어에서 우승은 2012년 10월 CJ인비테이셔널 이후 11년 7개월 만이다.

18번 홀(파4)에서 이어진 1차 연장전에서 최경주는 두 번째 샷을 그린에 못 미친 페널티 구역으로 보냈다.

물에 빠진 것 같았던 공은 워터 헤저드 내 러프



54번째 생일날 KPGA 우승 트로피 들어올린 최경주. (KPGA 제공)

위에 있었고, 최경주는 세 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올려 파로 막았다.

박상현도 파를 잡으면서 승부는 2차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같은 18번 홀에 속했던 경기에서 박상현이 파퍼트가 빗나간 뒤 최경주가 1m 거리의 파퍼트를 넣어 우승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5. 29. 수 ~ 6. 2. 일 여수세계박람회장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

미래교육 콘퍼런스

미래교육 전시

문화예술 교류

미래교육 축제